

포템킨 마을

노 윤 래 | 전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예카테리나(Yekaterina, 1729~96)는 18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을 통치한 여제(女帝)로 역사에는 케서린 대제(Catherine II, the Great)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공주로 출생한 그녀는 러시아의 피터 대제(Peter, the Great) 손자인 홀스타인(Holstein) 대공과 결혼했으나 권력욕이 강해 남편을 축출하고 제위에 올랐다.

예카테리나 여제는 34년간 제위에 있으면서 대내적으로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서구화를 추진하여 러시아의 근대화에 심혈을 쏟은 계몽 군주로, 대외적으로는 크림 반도, 우크라이나 우안 지역, 벨로루시, 리투아니아를 병합하고 흑해와 중앙 유럽에 이르는 518,000km²의 영토를 확장한 여걸 황제로 기록되어 있다.

거짓으로 꾸며낸 눈가림 - '포템킨 마을'

포템킨 마을(Potemkin Village)이란 1787년 예카테리나 여제가 새로 합병한 크림 반도를 시찰했을 때에 일어난 일화에서 연유된 것인데, 이야기는 당시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던 그 지방의 군사과 행정 책임자인 포템킨(Grigori A. Potemkin)이 여제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계략으로 나무판에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그려 여제를 태운 배가 지나는 강둑에 세워놓고 여제 일행이 탄 배가 지나가면 신속하게 그림을 하류 쪽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마을의 빈곤을 감추고 개발이 잘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초라하거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려고 거짓으로 꾸며낸 눈가림을 '포템킨 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

포템킨 마을 이야기의 진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일화는 일반적으로 과장된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행정 장관이었던 포템킨의 정적들이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한국전력공사 근무(1966~ 1994, 최종

직위: 영광원자력본부장)

한전원자력연료(주) 근무

(1994~2000, 최종 직위: 사장)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악의적으로 퍼트린 소문이라는 주장인데, 전기 작가인 몬티포레(Montefiore)에 의하면 포템킨이 여제와 그 일행을 즐겁게 하기 위해 거트 구조물을 강변에 세우고 모닥불을 피워 마을의 넉넉한 생활상을 보이려 했던 것은 사실이 아닌 픽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19세기 러시아 사회의 전문가인 판첸코(Aleksandr Panchenko)는 그의 자서전에서 포템킨은 실제로 모의 구조물을 마을에 세웠으며 일종의 무대 장치였음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유대인의 낙원(Paradise Ghetto)으로 선전된 테레시엔슈타트 수용소(Theresienstadt Concentration Camp)는 포템킨 마을의 대표적 사례로, 실제로는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사망률이 높았고, 끝내는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Auschwitz)로 이어진 것은 인류 문명의 오점이라 하겠다.

1931년 일본제국은 만주를 점령하고 청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溥儀)를 만주국의 꼭두각시 황제로 세워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에 일본의 침략을 제소한 중국과 연맹 대표들이 만주 지역을 시찰케 함으로서 만주국이 독립국이며 일본의 피점령국이 아님을 선전한 것도 포템킨 마을의 전형적 사례이다.

또한 동서간의 냉전이 격화되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소련 정부는 그들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선택된 마을, 공장, 학교, 상점 등을 보여준 것도 포템킨 마을의 전형적 사례이다.

미봉(彌縫)

요컨대 포템킨 마을이란 초라하거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려고 꾸며낸 눈가림을 뜻하는데 이런 눈속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미봉(彌縫)이란 고사(古事)가 있다.

미봉이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나오는 이야기로 춘추 시대 초기에 주(周)의 환왕(桓王)은 명목뿐인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위세가 높았던 정(鄭)나라 장공(莊公)의 정치적 실권을 박탈했다.

이에 장공은 주 왕실에 바치던 조공을 일체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왕은 진(晉) 등 여러 나라와 연합하여 장공을 응징하기 위해 정나라로 진격해 들어갔다.

장공은 참모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승미봉(伍承彌縫)이란 전법을 사용해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던 그 지방의 군사와 행정 책임자인 포템킨이 여제의 원심을 사기 위한 계략으로 나무판에 이름다운 마을 풍경을 그려 여제를 태운 배가 지나는 강둑에 세워놓고 여제 일행이 탄 배가 지나가면 신속하게 그림을 하류 쪽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마을의 빈곤을 감추고 개발이 잘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일화에서 '포템킨 마을'의 이야기가 연유된다.

원자력의 위험과 안전문화의 정착 사이에는 거대한 단절의鴻溝(鴻溝)가 놓여 있으며 안전을 위한 ‘선택의 깔때기(The Funnel of Choices)’가 급격하게 좁아질 수 있음을 원자력 종사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왕의 연합군을 격퇴했다는 것인데, 이 전법은 전차부대를 앞세우고 보병을 전차의 틈 사이를 연결시켜 적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이는 전술을 의미한다.

즉 미봉이란 낱말은 실로 꿰맨다는 뜻을 갖는데 본래는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는 빈틈없는 전투 포석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뜻이 변질되어 실패나 결점을 일시적으로 얼버무린다는 임시 변통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전을 위한 ‘선택의 깔때기(The Funnel of Choices)’

지난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입지 선정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말을 보게 되었다.

엄청난 재정 지원을 담보로 지역 주민의 방폐장 유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서 향후 신규 원자력 사업에 부담을 주게 되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비난을 정부와 사업자는 받았다. 그것도 저준위 방폐장에 한정되어 있어 앞으로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애로사항이 예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열악한 지방 정부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공기업인 전력 회사가 정부를 대신하여 지역 사회 개발에 지원하는 것은 큰 하자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다.

문제는 사업자의 지원금이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있다. 하나의 예로서 방폐장 지역에 양성자 가속기를 설치하기로 한 점이다. 가속기란 원자핵물리학자들의 연구를 위한 실험 기구인데 그렇다면 각종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과학 도시 주변이나 많은 대학이 몰려있는 수도권 지역에 설치해야 마땅할 것이다.

농어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방폐장 지역이라면 초, 중, 고교의 과학 시설을 확충하거나 소득 증대의 목적으로 양어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주민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가속기 사업이 방폐장 유치를 위한 하나의 선심이었다면 이것도 포템킨 마을의 전형적 사례가 아닌지 모르겠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런 미봉책이 원자력의 안전 관리에 스며들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위험은 항상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노출될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의 위험과 안전문화의 정착 사이에는 거대한 단절의鴻溝(鴻溝)가 놓여 있으며 안전을 위한 ‘선택의 깔때기(The Funnel of Choices)’가 급격하게 좁아질 수 있음을 원자력 종사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